

“광주·전남 공항 이전 난항 안타까워...대승적 결단을”

광주일보가 만난 경제사

홍철 한국은행 광주전남본부장



원, 은행 임직원 등 13명으로, 비장하게 서류를 검토하거나 정면을 응시하는 등 다양한 표정이 인상적이다. 국가 재건, 경제 안정 등 막대한 임무를 어깨에 짊어준 당시 최고의 경제·금융 전문가들의 고뇌가 그대로 전해지는 듯하다.

한국은행에는 모두 16개의 지역본부와 있으며, 이 가운데 부산·대구·경북·목포·광주전남·전북·대전·세종·충남 등 6개 본부가 은행 창립과 동시에 설치됐다. 과거 호남이 차지하는 경제적 비중이 컸다는 것을 엿볼 수 있다. 광주·전남본부는 광주와 전남 중부·동부권을, 목포본부는 전남 서남권을 관할구역으로 하고 있다. 광주·전남본부는 동구 금남로 3가(현 금남로공원)에 있었으나, 1999년 11월 서구 치평동(상무지구)로 이전했다.

홍철 한국은행 광주·전남본부장은 2023년 8월 부

이상 기후로 인한 농산물 가격 변동폭 주시...물가상승률 2% 목표 “제조업 기반 취약심각...AI·데이터산업 관련 대기업 유치 힘써야”

임했다. 대전이 고향인 그는 1994년 입행한 뒤 30년간 정책기획국·금융결제국 과장, 독일 프랑크푸르트 사무소, 금융결제국 팀장·부국장 등을 거쳐 지난 2022년 2월 목포본부장에 올랐다. 2년 이상 지역 내 최상위 금융기관장의 위치에서 광주·전남의 경제를 지켜보고 있는 전문가다. 2007년에는 카이스트에서 금융공학 석사학위를 받기도 했다. 그에게 지역 경제의 문제점, 한국은행의 역할, 광주·전남이 나아가야 할 방향 등을 물었다. 다음은 일문일답.

—한국은행은 무엇을 하는 기관인가.
 ▲한국은행의 설립 목적은 물가안정이다. 물가가 치솟게 되면 화폐가치가 하락하게 되어 그 부정적 영향은 고스란히 일반 국민들에게 돌아간다. 지난 2008년 글로벌 금융 위기를 겪으면서 물가안정 못지 않게 금융안정도 중요하다는 판단 아래 2016년 3월 한국은행법 개정을 통해 제1차 총칙 제1조 목적에 “한국은행은 통화신용정책을 수행할 때에는 금융 안정에 유의하여야 한다”는 조항이 추가됐다. 금융위기 시 중앙은행의 유동성 공급을 통한 최후대부자 기능(금융시장에 일시적으로 유동성을 공급하는 기능)이 없다면 금융시스템의 기능이 원래대로 복원되기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통화신용정책이라는 말이 어렵다.
 ▲상식적으로 물가가 어떻게 올라가는지를 살펴보면 이해가 가능하다. 물건에 비해 돈이 흔해지거나 물건의 수요에 비해 돈의 공급이 많지 못하면 물가가 오르게 된다. 통화신용정책은 시중에 돈이

과도하게 많거나 부족해서 물가가 급변동하지 않도록 금리와 통화량을 조정하는 정책을 말한다. 경제가 성장하는 과정에서 물가가 1~2% 정도 상승하는 것은 정상 범위라고 할 수 있지만, 갑작스럽게 치솟는 것은 경계해야 한다. 지난 2022년 6~7월 사이 6% 이상 물가가 올랐던 적이 있었다. 그래서 한국은행에서도 물가를 잡기 위해 기준금리를 인상하면서 물가상승률이 최근 2.4% 정도로 많이 둔화되었다. 그러나 한국은행의 중기 물가 목표가 2%라는 점에서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 최근 들어 이상기후 등으로 인해 농산물 가격의 변동폭이 커져서 보고 있다.

—실제 물가는 수치보다 더 올랐다고 느껴진다.
 ▲불가피한 부분이 있다. 모든 것을 데이터로 반영할 수 있다면 좋겠지만, 산출하는 과정에서 가중치를 두거나 수치를 적용하면서 과리가 생길 수 있다. 수치와 생활물가는 아무래도 차이가 난다.

—술직한 답변이다. 전문가로 광주·전남 경제를 2년 이상 지켜봤다.
 ▲광주·전남 전지역에 골고루 제조업이 들어와 분산 배치(포드폴리오)되어 있다면 문제가 없을 텐데, 생각보다 제조업의 기반이 취약하다. 광주의 경우 기아자동차를 중심으로 가전, 반도체, 건설 등이 주로 경제를 떠받치고 있다. 그런데 자동차 수출이 잘 되고 있기는 하지만 자동차부품을 생산하는 다수의 주요 협력업체가 수도권에 자리하고 있어 후방연관효과를 보기는 쉽지 않다. 전남 동부권의 석유화학·철강 산업도 부진을 면치 못하고 있다. 우리나라 석유화학 소재를 수입하

던 중국 기업들의 자체생산력이 점차 높아지면서 가격 경쟁력에서 밀리고 있는 것이다. LG화학의 경우 일찍부터 이차전지, 친환경소재 등 신성장 사업으로 돌아서고 있는 것도 이러한 이유 때문이다. 광주·전남지역은 제조업 기반이 약해 철저한 준비가 없다면 앞으로 암울할 수도 있다.

—희망적인 메시지는 없는가.
 ▲전남은 농수축산업 등 1차 산업에 기반한 곳으로, 과거에는 사람들이 일자리를 찾아 수도권과 영남으로 떠났다. 이제는 신재생에너지 부문에서는 분명한 장점이 생겼다. RE100(100% 재생에너지 사용), 탄소 중립 등 세계적인 트렌드를 우리나라도 따라갈 수밖에 없다. 수출로 먹고 사는 국가이기 때문이다. 태양광, 해상풍력 등의 역량을 산업생태계 구축으로 이어나가고, 여기에 데이터센터 등 전력 수요가 높은 기업들을 지역으로 유치한다면 발전 가능성이 높아질 것이다.

—지역의 리더들에게 조언을 한다면.
 ▲광주·전남지역 상생을 위해 대승적 차원에서 실용적 결단이 있었으면 좋겠다. 명분도 중요하지만 상생하는 관점에서 실리도 좀 찾았으면 한다. 지금까지 광주·전남에 있으면서 가장 안타까운 것은 ‘광주 민간·공공공항 이전 사업’이다. 상당히 오랜 기간 지역 현안이 되고 있는데, 아직까지 후보지조차 결정을 하지 못하고 있다. 올해가 넘어가기 전에 원만한 협상을 통해 이전 후보지가 선정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이 지역에 대기업이 없는데.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 인터뷰 전문은 인터넷 광주일보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광주은행, 해외 자회사 JB 증권 베트남 우수직원 연수



6인 초청 본점 견학 등

광주은행은 14일 “최근 베트남 소재 해외 자회사인 ‘JB 증권 베트남’(JBSV)과 현지 우수직원 연수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현지 우수직원 연수는 광주은행과 JBSV의 교류 활성화 차원으로, 지난 2022년 처음 도입한 뒤 매년 실시되고 있다.

이번 연수는 지난 6월 28일부터 7월 3일까지 진행됐으며, 뛰어난 업무성과를 바탕으로 선정된 우수직원 6인을 초청해 광주은행 본점을 견학하고,

고병일 광주은행장과 모회사의 경영 비전을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사진)

또 우수직원들은 광주은행 자체 스포츠단인 ‘광주은행 텐텐 양궁단’과 양궁을 직접 체험하고, ‘광주FC’ 축구 경기 관람 등을 통해 지역 발전을 위한 모회사의 사회공헌 활동 및 브랜드 마케팅 전략을 학습했다.

이를 기반으로 베트남 현지에서도 지역과 금융기관의 협력이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을 것으로 광주은행은 기대하고 있다.

고병일 광주은행장은 “JBSV는 광주은행의 최초 해외 자회사로서 관심과 애정이 남다르다”며 “JBSV의 미래를 책임질 베트남의 인재들을 직접 만나볼 수 있어 뜻깊은 시간이었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이번 우수직원들은 지난해 JBSV의 성공적인 온라인 브로커리지 사업 추진에 크게 이바지한 만큼 이번 연수가 모회사에 대한 이해력 제고 및 업무 능력 향상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좋은 경험이였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장윤영 기자 zzang@kwangju.co.kr

광주경총, 김성이 사회복지협회장 초청 강연



금요조찬포럼 성료

광주경영자총협회(광주경총)는 지난 12일 광주 서구 치평동 홀리데이인 광주호텔 3층 컨벤션홀에서 김성이 한국사회복지협의회 회장을 초청해 “기업ESG 사회공헌 협력의 시대”를 주제로 ‘1656회 금요조찬포럼’을 개최했다.

이날 강연을 맡은 김성이 회장은 제46대 보건복지부장관, 이화여자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장을 역임하고, 현재 사회복지협의회 회장에 재직하고 있는 사회복지 분야 최고 권위자로, 강연에는 147명의 광주경총 회원이 참석했다.

이날 강연에서 김 회장은 우리나라의 사회복지 개념이 1980년대 빈곤 문제해결, 1990년대 폭력

문제해결, 2000년대 자활력 제공에 이어 현재는 지역사회 개발을 가장 중요한 복지 문제로 꼽았다.

김 회장은 목포시 소재 공생원인 윤치호 전도사와 윤학자 선생의 이야기를 시작으로, 기업과 지역의 ‘공생’에 대한 강연을 이어갔다. 특히 최근 우리나라 사회가 경제적 불확실성과 공동체 해체 등을 중심으로, 사회적 양극화, 인종차별, 지역갈등 등 각종 사회적 문제가 국내 기업에도 타격을 주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회장은 “공공, 기업, 시민사회의 협력 거버넌스 구축을 통해 신뢰, 다양성, 공감을 통한 관계적 복지 생태계를 구축하면, 국민들의 삶의 질 향상 및 지속 가능한 사회로 나아가 수 있다”고 말했다.

/글·사진·장윤영 기자 zzang@kwangju.co.kr

삼성전자, 이동형 모니터 ‘무빙스타일’ 5만대 팔렸다

출시 8개월만...20~30대 인기

삼성전자의 움직이는 모니터 ‘무빙스타일’(사진)이 20~30대 여성 고객을 중심으로 큰 인기를 끌고 있다.

삼성전자는 14일 “무빙스타일이 출시 8개월 만에 누적 판매 5만대를 돌파했다”고 밝혔다.

무빙스타일은 특히 이사철인 지난 5월 한 달 동안 1만 대 이상 판매된 것으로 나타났다. 구매자 중 30% 이상이 혼수·이사 고객이었으며, 일반 모니터와 비교하면 20~30대 여성 고객이 많았다.

무빙스타일은 스마트 모니터에 무빙 스탠드를 결합해 편리한 이동성이 특징으로 꼽힌다. 실내 어디서나 모니터를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어 1인 가구, 신혼부부 등 젊은 세대가 선호하는 제품이다.

무빙스타일은 2024년형 스마트모니터 M8은 강화된 AI 기능으로 긍정적인 반응을 얻고 있다. 화질과 음질에 AI 기술을 적용해 몰입감을 극대화한다. 이 밖에도 삼성전자가 로지텍 전문 기사가 직접 배송, 설치 서비스를 제공해 주는 것도 장점이다.



한편, 무빙스타일은 M8·M7·M5 등 다양한 모델, 43형·32형·27형 등 여러 사이즈와 결합이 가능하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한국광기술원, 다면시선추적 기술 개발 성공

관광 등 디지털 서비스 활용 가능

한국광기술원이 ‘콘텐츠 집중도 평가를 위한 다면 시선 추적 기술’ 개발에 최근 성공했다. 이 기술은 학습자의 안면과 함께 시선과 호흡의 움직임을 동시에 파악해 사용자의 시선을 3차원 공간상에 매핑하는 것이다. 시청자의 콘텐츠에 대한 집중도를 정량적으로 평가할 수 있게 되면서 앞으로 콘텐츠 품질 평가나 주목도 높은 콘텐츠 개발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한국광기술원은 기대하고 있다.

기존 집중도 평가 방식은 피실험자의 안면을 고정해 채 동공의 움직임을 파악해 의료 등 특정 분야나 전문 실험 데이터 구축에 사용됐으나 시선 추적 기술은 안면을 실시간으로 추적해 화면을 기준으로 사용자의 시선을 3차원 공간상에 매핑하는 것이 차별성이다. 또 웹캠만으로 사용자의 시선 정보를 추출할 수 있어 별도의 장치 구비를 요구하지 않아 다양한 어플리케이션에서도 활용이 가능하다.

한국광기술원은 이번 기술 개발로 앞서 언급한 안면 탐색 기술, 시선 추적 기술을 더러닝으로 융합해 시청자의 집중도를 가늠할 수 있는 다양한 데

이터를 실시간으로 수집 및 모니터링할 수 있게 될 것으로 전망했다. 이 기술은 한국광기술원 공간정보연구센터 김희민 박사팀이 개발했으며, 앞으로 교육, 엔터테인먼트, 광고, 관광 등 다양한 산업에 적용된 디지털 서비스에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윤현석 기자 chadol@

■ 로도복권 (제1128회)

당첨번호						2등 보너스숫자	
1	5	8	16	28	33	45	
등위						당첨금(원)	당첨자수
1	6개 숫자일치					419,925,560	63
2	5개 숫자 + 보너스숫자일치					57,262,577	77
3	5개 숫자일치					1,476,137	2,987
4	4개 숫자일치					50,000	153,592
5	3개 숫자일치					5,000	2,545,750